

“중부내륙철도는 달리고 싶다” 상주시, 예타 조속 통과 촉구

문경·상주·김천철도 연결 촉구 시위
“철도 없이 기업·관광객 유치 어려워”
예비타당성조사, 올 연말 완료 예정

경북 상주시가 중부내륙철도와 남부내륙철도의 미 연결 구간인 문경~상주~김천(73km) 연결을 촉구했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14일 세종시 한국개발연구원(KDI) 앞에서 ‘문경~상주~김천 중부내륙철도는 달리고 싶다. 예타 통과 조속히 처리하라’는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였다.

중부내륙철도와 남부내륙철도의 미 연결 구간인 문경~상주~김천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는 2019년 5월 시작돼 현재 진행 중이며 올해 연말 완료 예정이다. 상주시는 조사 완료에 앞서 오는 11월로 예정된 예비타당성조사 종합평



경북 상주시가 중부내륙철도와 남부내륙철도의 미 연결 구간인 문경~상주~김천(73km) 연결을 촉구했다. 강영석 상주시장(가운데).

가(AHP)를 앞두고 시민의 염원을 전달하기 위해 1인 시위에 나섰다.

상주시장에 이어 상주교육발전협의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주시협의회, 이·통장연합회, 상주상공회의소, 상주시새마을회, 상주시의회 등 각계 대

표가 참여한 가운데 17일까지 1인 시위를 계속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상주시 등이 1인 시위에 나선 것은 철도 연결 없이는 지역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상주 시민들이 수도권에 가려면 자가용이나 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열차를 타려면 문경이나 김천, 대구로 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지역 기업들도 철도가 있어야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고 주장한다.

수도권과 중·남부 지역을 연결하는 중요한 인프라인 철도 없이는 기업이나 관광객 유치 등이 어려워 낙후 상태에서 벗어나기 힘들다는 것이다.

강 시장은 임이자·송언석 국회의원과 함께 2020년 4월부터 국무총리, 기획재정부장관, 국무조정실장, 국가균형발전위원장, 국토교통부장관, 국가철도공단이사장 등을 찾아다니며 철도 연결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철도가 연결돼야 수도권과 낙후된 중부 및 남부내륙을 연결하는 산업벨트 구축이 가능하고 국가 균형 발전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지역의 생존과 균형 발전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사업인 만큼 예비타당성조사가 반드시 통과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문경~상주~김천 고속전철화사업이 빠른 시일 내 착공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문경~상주~김천 고속전철화사업은 총사업비 1조3714억원을 투입해 중부내륙철도(서울수서~경북문경)와 남부내륙철도(경북 김천~경남 거제)의 미 연결 구간(L=73km)을 연결하는 대형국책사업이다.

경북 서·북부의 경제 활성화와 풍부한 관광자원 개발을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며 지난해 문경·상주·김천 시민 31만101명 중 80%에 가까운 24만4734명이 탄원서에 서명할 정도로 관심이 집중돼 있다.

/상주(경북)=김홍기 기자 gi2136@metroseoul.co.kr

경북도, 전통시장 활성화 박차... 국비 확보

내년 국비 115억 원 확보
전국서 두 번째 많은 예산

경상북도가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국비 115억원을 확보하면서 사업의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경상북도는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2022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 사업’ 공모에서 국비 115억 원을 확보했다. 경기도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 많은 예산이다.

우선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주변의 주차장 건립, 개보수, 이용보조 등에 국비 87억

원을 투입한다. 또한 특성화시장 육성 사업에는 국비 13억 원을 투입해 문화관광형시장, 첫걸음기반조성, 디지털 전통시장 지원에 사용된다.

특히, 디지털 전통시장은 4개소가 신청해 4개소 모두 선정되면서, 유통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통시장 디지털 전환의 발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전통시장 화재사고 예방을 위해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노후전선 정비 사업에 국비 5억 원을 지원한다.

시장경영패키지사업은 시장별 마케팅, 매니저, 교육 등 체계적인 시장경영

을 위해 국비 10억 원을 투입한다.

그간 경북도는 주차장, 아케이드 등 시설현대화, 온누리상품권 발행, 특성화시장 육성, 상인교육 등 전통시장·상점가 활성화를 위해 집중 투자했다.

향후에는 비대면 디지털 전환에 대비한 역량을 높이기 위해 전통시장 온라인 진출을 가속화할 방침이다.

배성길 경북도 일자리경제실장은 “이번 사업 선정결과는 시장 상인화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며, “유통환경에 빠른 대처만이 전통시장이 발전하는 길”이라고 전했다.

/경북=김홍기 기자



수묵비엔날레

/전남도청

국제수묵비엔날레, 비대면 전시문화 새 장

온라인 전시관 관람객 5만8762명

‘2021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가 코로나 비대면시대 온라인 전시문화의 새 모델을 제시했다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 누리집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전시관(온라인 미술관, 온라인 영상관 등)에는 관람객 5만8762명이 방문했다.

이는 당초 관람객 목표 30만 명의 25%를 넘어선 규모로, 전체 관람객 중 온라인 관람객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77%에 달해 온라인 전시문화를 새롭게 세우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사무국은 목포문화예술회관(비엔날레 1관)의 사전 예약제와 정부 미술관 기준보다 강화한

관람 인원 제한 등으로 현장 관람보다는 온라인 관람을 유도한 것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국내외 15개 나라 200여명의 작가가 참여해 수묵을 현대적으로 해석하고, 우리 삶과 연계한 생활 속 수묵작품까지 선보여 관람객이 수묵의 매력에 흠뻑 빠져들게 하고 있다.

2021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는 오는 10월 31일까지 ‘오채찬란 모노크롬-생동하는 수묵의 새로운 출발’이라는 주제로 목포·진도 일원에서 펼쳐진다. 올해는 광주, 여수, 광양, 나주 4개 특별전시관을 비롯 구례, 보성, 해남 등 9개 시군에서 15개 수묵기념전을 동시에 개최해남도 곳곳에서 수묵을 감상할 수 있다.

/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

제26회 부산국제영화제 공식 포스터 공개

한국 전통 모시천 실사 바탕

오는 10월 6일(수)부터 15일(금)까지 열리는 제26회 부산국제영화제가 공식 포스터를 전격 공개했다.

제26회 부산국제영화제 공식 포스터는 한국 전통 모시천의 실사를 바탕으로 부산국제영화제의 영문 표기를 손글씨로 흘러 쓴 디자인 작품이다. 부산국제영화제의 주색인 붉은 색 계열 모시천을 실사 촬영해 다양한 색으로 변주했다.

다채로운 색의 모시천을 겹쳐 색을 변주한 이번 포스터 배경은 세계 영화를 선보이는 ‘축제의 장’이 된 ‘영화의 도시’ 부산을 나타낸다.

포스터 하단의 짙은 보라와 자주색은 부산의 밤바다를, 포스터 중앙에 여러 색깔의 모시천이 겹쳐지는 부분은 영화제가 펼쳐지는 하늘과 그 아래 공간을 의미한다. 화면 중앙을 둘러싸는 형태로 배치된 7가지 색상의 정사각형은 각기 다른 문화권에서 제작된 각국의 다양한 영화를 상징한다.

한국의 전통 유산인 ‘모시 짜기’는 모시품을 모시천으로 완성하기까지 보통



석 달 정도가 꼬박 걸리는 고난의 작업이다. 오랜 시간 많은 이들이 일을 나누어 맡아야 완성되는 ‘모시천’은 한 편의 영화를 완성하는 영화인들의 노고를 대변해 특별한 의미를 더한다.

올해 부산국제영화제 포스터는 제2회부터 부산국제영화제 미술감독으로 활동한 최순대 부산현대시각디자인협회장이 제작했다.

/부산=김종섭 기자 newsbreak@

무안군 부동산특별조치법 활용 안내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추석명절을 맞아 조상명의로 남아있는 토지에 대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활용할 것을 안내하고 운영기간이 1년도 남지 않았으니 서둘러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부동산특별조치법은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특별법으로 토지·임야 대장과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부동산 중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상속·교환 등의 취득원인을 통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며, 소유권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은 적용되지 않는다.

부동산특별조치법 신청을 원할 경우 해당 부동산 소재지에 위촉된 5명 이상의 보증인(법무사 1명 포함)이 날인한 보증서를 첨부해 민원지적과에 접수해야 하며, 2개월의 공고기간 동안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 등기소에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전남=양수영 기자

함평군, 내달 군민지원금 20만원 지급

함평사랑상품권으로 지급

함평군은 14일 “군민지원금이 다음 달 13일부터 전 군민에게 1인당 20만원씩 함평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고 밝혔다.

군민지원금 지급대상은 9월 13일 0시 기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과 군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결혼이민자, 영주 체류자격을 취득한 외국인 포함 약 3만1650명이다.군은 지난 달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를 제정해 지급근거를 마련하고 보통교부세 및 추가세입 재원과 각종 행사비 등 세출예산을 절감하여

소요재원을 확보하였다.

군은 마을경로당을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지급서비스’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군민지원금을 빠른 시일 내 지급할 계획이다.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신청 방법 등은 함평군 홈페이지, 함평군청 안전건설과,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함평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 군민지원금을 통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에게 활력을 불어넣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전남=김태수 기자 ts7080@